

보도일자

배포 즉시

2016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

- 한국기업지배구조원(원장 조명현, 이하 CGS)은 상장기업의 환경경영(E), 사회책임경영(S), 지배구조(G) 수준을 평가하여 2016년 ES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함
 - ESG 등급 공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기업의 ESG 리스크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
 - * 각 ESG 등급 및 ESG 통합 등급은 S, A+, A, B+, B, C, D 7등급으로 구분
- 2016년 평가 결과, 전년 대비 ESG 전반에서 관행 개선이 이뤄진 점은 고무적
 - 그럼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70% 이상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 필요성은 여전
- ESG 통합등급은 E·S·G 영역별 등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, 기업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의미
 - 양호한 수준(A+, A, B+ 등급)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151사(21.2%)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(6.0%p ▲)하여 ESG 관행 개선을 가시적으로 확인

< 2016년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>

등급		2016년	2015년*	비고
양호	S	- (0.0%)	- (0.0%)	-
	A+	9사 (1.3%)	1사 (0.1%)	▲1.1%p
	A	38사 (5.3%)	27사 (3.9%)	▲1.5%p
	B+	104사 (14.6%)	78사 (11.2%)	▲3.4%p
취약	B 이하	561사 (78.8%)	590사 (84.8%)	▽6.0%p
계		712사 (100.0%)	696사 (100.0%)	

* 수시등급조정 2회(2016.02, 2016.05) 적용한 결과

□ ESG 등급이 양호한 기업과 취약한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를 비교해 본 결과,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경영성과 차이가 확인

○ 특히, 사회책임경영 등급이 양호한 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취약한 기업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보였는데, 이는 최근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연관지어 볼 수 있음

<ESG 등급과 경영성과[†]>

업종		기업 수	업종 초과 ROA	업종 초과 영업이익률	업종 초과 Tobin Q [‡]
환경	양호군	198	-0.449	2.119	-0.125
	취약군	514	-0.373	-0.226	-0.214
	t-value	-	-0.136	2.083**	1.185
사회	양호군	194	0.657	2.174	-0.143
	취약군	518	-0.746	-0.235	-0.221
	t-value	-	2.419**	2.051**	0.912
지배구조	양호군	162	0.610	1.673	-0.153
	취약군	550	-0.670	0.093	-0.200
	t-value	-	2.514**	1.061	0.517
ESG 통합	양호군	151	0.251	2.700	-0.062
	취약군	561	-0.610	-0.182	-0.233
	t-value	-	1.622	2.160**	1.853*

† 2015 회계연도의 값 기준. Extreme values are winsorized at 1%

‡ (시가총액 + 부채장부가액) / 자산총액

*, **는 각각 90%, 95%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

□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, 아시아 지역의 사회책임투자 확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범세계적이며, 거스를 수 없는 추세

○ 국내 상장기업들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**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**

- 붙임 1. 2016년 ESG 등급 부여 현황
2. 2016년 ESG 등급별 기업 목록

※ 담당 : ESG 평가팀 방문옥 팀장 (02-3775-3701, moonoki@cgs.or.kr)